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광주FC 또 승리의 말춤 출까

성남전 대역전극을 통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광주가 인천전 승리 세러모니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성남과의 원정경기에서 동점골을 넣은 복이(왼쪽)가 동료들과 말춤 세러모니를 하고 있는 장면. 〈사진제공 광주 FC〉

오늘 B그룹 선두 인천 상대 광주서 K리그 41라운드
비기거나 지면 강등권 추락 … 안방 기적 이룰지 주목

성남전 대역전극의 주인공 광주가 안방에서 또 다른 드라마를 연출한다.

극적인 승리로 반전에 성공한 광주 FC가 21일 밤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K리그 41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39라운드 강원전 무승부에 그쳤던 광주는 앞선 성남전에서도 초반 3골을 연달아 내주며 강등위기에 직면했었다. 하지만 간절함을 앞세운 집중력으로 4-3의 대역전극을 펼치며 기사회생했다.

뒷심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광주의 시즌 첫 역전승이자 스플릿 리그 10경기만의 승리였다.

그동안 광주는 선제골-동점-역전골-동점-역전패의 공식 속에 무승의 부진에 빠져있었다. '강등 절벽'에 선 광주는 성남전 극적인 승부로 귀중한 승점 3점과 함께 K리그 주간(40R) 베스트 팀, 베스트 매치에 동시 선정됐다.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광주는 인천전 승리로 강등권에서 벗어나겠다는 각오다.

무승에서 탈출하며 분위기를 탔지만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광주는 인천전에서 아직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상대 전적은 3무 2패. 5골을 넣었고 7골을 내줬다.

인천전을 앞두고 광주는 주간훈련에서 전술이 아닌 회복에 집중했다. 빡빡한 경기일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광주는 21일 인천과의 홈경기를 치른 뒤 25일 대전으로 건너 가 원정경기를 치러야 한다. 반면 '강등 라이벌' 강원은 24일 상주와의 경기가 잡혀있어 선수 운영에 한결 여유가 있다.

긴박한 4연전을 치러야 하는 만큼 체력이 관건이다. 분위기는 좋다.

김동섭과 박민, 박호진이 성남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비축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경고로 인한 선수단 누수가 없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방심은 금물. 16승14무10패로 그룹B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인천은 최근 16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대표와 해외 무대를 경험한 설기현과 김남일이 고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국가대표 수비수 정인환과 인천 공격의 핵심인 남준재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패기의 광주가 인천을 상대로 기적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프로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적의 역전승 … 광주 FC K리그 40라운드 베스트팀

복이·안동혁 베스트 11

기적같은 역전극을 펼친 광주 FC가 베스트 팀에 선정됐다.

광주 FC가 20일 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 40라운드 베스트팀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는 지난 17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 일화와의 경기에서 0-3으로 뒤진 전반 38분, 안동혁의 골을 시작으로 박희성-복이-주앙파울로가 연달아 골을 넣으며 4-3의 극적인 승부를 연출했다.

21개의 유효슈팅이 쏟아진 이 경기는 40라운드 베스트 매치로 꼽혔다.

프로 데뷔골을 터트린 수비수 안동혁과 동점골을 넣은 외국인 공격수 복이는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안동혁은 '과감한 오버래핑으로 대역전쇼 발판을 마련하며 상대 공격 원천 봉쇄했다'는 평가와 함께 생애 첫 베스트 11이 됐다. 팀의 첫 골을 넣은 안동혁은 후반 1분에는 복이의 헤딩골을 도우며 1득점 1도움을 기록했다.

6개월의 골침묵을 깨고 값진 동점골의 주인공이 된 복이도 'K리그 최장신(201㎝) 공격수의 위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복이

안동혁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 올 겨울엔 사랑할거야

KIA, 차일목 이종환 권윤민 12월 결혼식
이적생 조태수 조영훈 김희걸도 '품절남'

'호랑이 군단' 12월에도 바쁘다.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캠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달 17일 시작돼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는 45일간의 대장정이 끝나면 선수들에게 '진짜' 휴식달이 찾아온다.

하지만 지옥훈련이 끝난 12월에도 선수들은 바쁘다. 결혼 러시와 함께 일일호프와 시상식 등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비시즌인 12월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결혼철이다.

올 시즌까지 타이거즈 선수로 뛰었던 투수 조태수가 1일 서울에서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는다. KIA 스카우트로 맹활약하고 있는 권윤민은 7일 인천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8일에는 광주와 대구를 놓고 KIA 선수들의 고민이 예고된다.

포수 차일목과 특별 지명선수로 NC로 이적한 야수 조영훈이 같은 날 각각 광주와 대구에서 식을 올린다.

올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KIA에서 삼성으로 둥지를 옮긴 투수 김희걸은 16일 서울에서 '품절남'대열에 합류한다.

결혼러시의 대미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외야수 이종환이 장식한다. 이종환은 22일 고향 태안에서 새신랑이 된다.

일일호프와 시상식의 스케줄도 기다리고 있다.

5일에는 김동재 코치 돕기 자선 일일호프가 열리고, 7일에는 연례행사를 위해 타이거즈 OB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11일은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탄생하는 날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연봉 잭팟 터뜨릴까

LA 다저스와 첫 협상 테이블
미 언론 "큰 액수 불렀을 것"

한국 프로야구 간판 투수 류현진(25·한화 이글스)이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와 협상 테이블에 처음으로 앉았다.

미국 스포츠전문지 SB네이션은 류현진과 그의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가 19일(현지시각) 다저스 구단 관계자와 만나 입단 협상에 들어갔다고 야후스포츠의 메이저리그 담당인 팀 브라운 기자의 트위터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다저스는 포스팅에서 2573만7737달러33센트(약 280억원)라는 최고 응찰액을 적어내 류현진과의 우선 협상권을 따낸 구단이다. 이들은 이날 점심을 같이하면서 협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진 측이 이날 첫 협상에서 다저스에 어느 정도의 연봉을 요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류현진의 에이전트가 보라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액수를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SB네이션은 분석했다.

최근에 포스팅을 거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아시아계 선수들을 살펴봐도 마쓰자카 다이스케(보스턴), 다르빗슈 유(텍사스)는 모두 5000만달러 이상의 잭팟을 터뜨렸다.

류현진과 다저스의 협상 마감 시한은 다음 달 12일이다. 스탠 카스텐 LA 다저스 구단 사장은 윈터미팅(12월3~6일)이 끝날 때까지는 류현진과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최종 입단 계약은 12월 7일에서 12일 사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해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진출은 무산된다.

/연합뉴스

동신대학교 김홍식 교수
한국골프학회 회장 추대

동신대학교 김홍식 교수(사진·생활체육학과)가 한국골프학회 4대 회장에 추대됐다.

김 교수는 최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2012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한국골프학회 회장에 추대, 3대 회장에 이어 연임에 성공했다.

김 교수는 현재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 KOC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한국골프학회 4대 회장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국민생활체육 유공자 시상식 광주·전남 19명 수상

2012국민생활체육 유공자 시상식에서 광주·전남생활체육회 관계자 19명이 상을 받는다. 21일 SK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전국 17개 시·도 생활체육회와 종목별연합회를 대상으로 한 2012 국민생활체육 유공자 시상식이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시생활체육회 김창현 부회장과 조동진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으며 고정주 광산구생활체육회장(우수회원단체장), 시생활체육회 곽상복 팀장(스포츠7330모범상)과 노창완 주임(우수직원), 이현석·임정수지도자(우수지도자) 정구연합회 송광용사무국장(종목별동호인육성), 동구드림스포츠클럽·광주제일정구클럽(생활체육우수클럽)이 국민생활체육회장상을 수상한다.

전남에서는 화순군생활체육회 조준성 회장과 전남자전거연합회 임용식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자가 됐다.

해남군생활체육회 김재근 회장과 신안1004스포츠클럽(대표 최춘옥), 장성군생활체육회 정가영·함평군생활체육회 윤진하 지도자는 국민생활체육회장상을 받는다.

전남생활체육회 조정만 사업과장은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